**자기소개서\_김가람**

**1. 지원동기**

저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면서도 사용자의 경험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사람입니다. 의류 제조업과 패션 R&D 현장에서 8년 이상 글로벌 바이어를 대상으로 샘플 핸들링과 생산 효율 분석을 담당하며, 꼼꼼한 실행력과 사용자 중심의 사고를 동시에 길러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의류 샘플을 제작하고 납기를 맞추는 수준을 넘어, 바이어의 요구를 분석하고 최적의 결과물을 제안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특히 GSD 프로그램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경험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용자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제조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은 웹 환경과 사용자 경험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조와 디자인 경험을 디지털 영역에 접목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웹퍼블리셔로서는 표준과 접근성을 준수한 안정적 구현을, UX/UI 디자이너로서는 사용자 여정을 고려한 직관적 설계를 통해, 기업과 사용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웹서비스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고자 지원했습니다.

**2. 성장과정**

저는 꾸준함과 도전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의상디자인과 전공을 시작으로 학사와 대학원까지 학업을 이어오며 디자인적 감각과 분석적 사고를 동시에 발전시켰습니다. 학업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경험을 학문적으로 연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패션 제조업에 근무하면서도 방송통신대와 대학원 과정을 병행하여, 배운 지식을 바로 현장에 적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긴 통근과 빡빡한 근무 환경 속에서 업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매일 To-do 리스트를 작성하는 습관을 갖추게 되었고, 이러한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더욱 체계적인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메모하는 습관, 반복되는 일에 개선 포인트를 찾는 습관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저를 성장시킨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꾸준함과 자기관리를 통해 도전적인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배움의 기회를 확장해온 경험은 웹과 UX 환경에서도 유효합니다. 코드를 쌓아가며 구조를 다지고, 사용자 행동을 분석하며 여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3. 성격의 장점**

저의 성격은 ‘빠르면서도 꼼꼼하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의류 샘플 핸들링과 생산 관리 업무는 항상 납기 압박과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힌 긴장된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빠른 실행력이 없으면 업무 자체를 시작할 수 없었고, 꼼꼼한 검증이 없으면 결과물의 신뢰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작은 단위로 업무를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덕분에 업무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품질을 보장할 수 있었고, 팀의 납기 준수율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 법인과 사내 여러 부서와의 협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 능력을 키웠습니다. 타 부서의 입장을 이해하고 중재자로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협업의 가치를 깊이 체감했습니다. 이 경험은 웹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퍼블리셔로서는 빠른 마크업과 철저한 디버깅을 통해 오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UX/UI 디자이너로서는 사용자 니즈를 반영하고 팀 내 의견을 조율하며 더 나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의 성격적 강점은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으로 귀결되며, 이는 기업에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4. 직무경험**

실무 8년의 경험은 저를 ‘사용자 중심의 문제 해결자’로 성장시켰습니다. 글로벌 바이어의 요구에 맞는 디자인을 제안하고 샘플을 제작하며, 생산공정을 분석하고 효율을 관리했습니다. 특히 GSD 프로그램을 활용해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한 경험은, 퍼블리셔로서의 코드 최적화와 UX 디자이너로서의 사용자 플로우 개선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바이어별 매뉴얼을 제작하고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면서, 단순한 작업을 넘어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는 역량을 키웠습니다. 이는 UI 가이드라인 작성과 디자인 시스템 구축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 법인과의 협업 경험은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일관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팀의 안정성을 위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온 경험은 웹·앱 서비스 설계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저의 직무경험은 ‘실행력과 사용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역량으로 정리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토대로 웹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 입사 후 포부**

입사 후에는 웹퍼블리셔와 UX/UI 디자이너라는 두 가지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기술적 안정성과 사용자 친화적 경험을 동시에 구현하겠습니다. 퍼블리셔로서는 최신 웹표준(HTML5, CSS3, ES6 등)을 준수하며 반응형 웹을 구축하고, 크로스 브라우징 및 접근성을 확보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UX/UI 디자이너로서는 Figma, XD와 같은 툴을 적극 활용하여 사용자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직관적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겠습니다. 나아가 데이터 기반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팀 내 협업을 통해 개발자와 디자이너 간의 간극을 줄이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와 일관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해 회사의 디지털 자산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맡은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신뢰를 얻고, 중장기적으로는 퍼블리싱과 UX/UI를 동시에 아우르는 전문 인재로 성장하여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저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기업이 한 발 앞서 나아가도록 함께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